

www.uniedu.go.kr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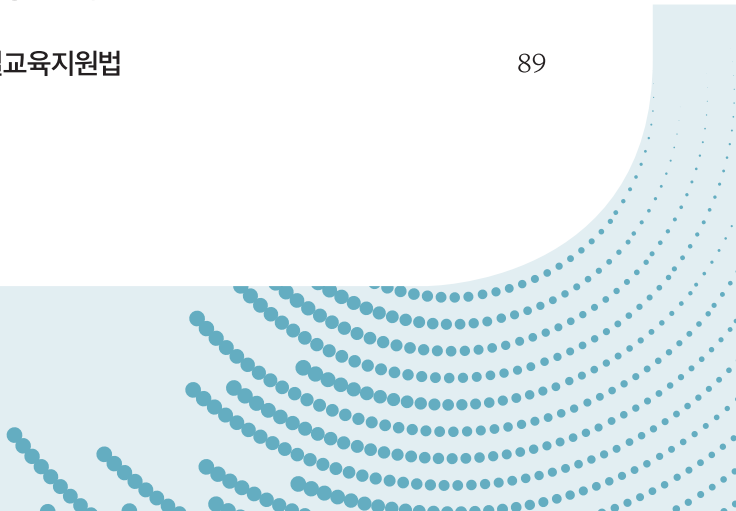
I	통일교육의 목표	05
II	통일교육의 중점방향	11
III	통일교육의 내용	19
	1. 통일의 이해	20
	1) 통일문제의 성격	20
	2) 분단의 배경과 성격	21
	3) 통일의 필요성	22
	4) 통일의 비용과 편익	24
	2. 북한의 이해	26
	1) 북한의 정치	26
	2) 북한의 군사	27
	3) 북한의 경제	29
	4) 북한의 사회·문화	31
	5) 북한 주민의 인권	33
	3. 통일환경과 통일정책	35
	1) 국제 정세와 동북아 정세	35
	2) 남북관계	38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42
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44
4. 통일 비전과 과제	45
1) 통일 미래 비전	45
2) 통일을 위한 과제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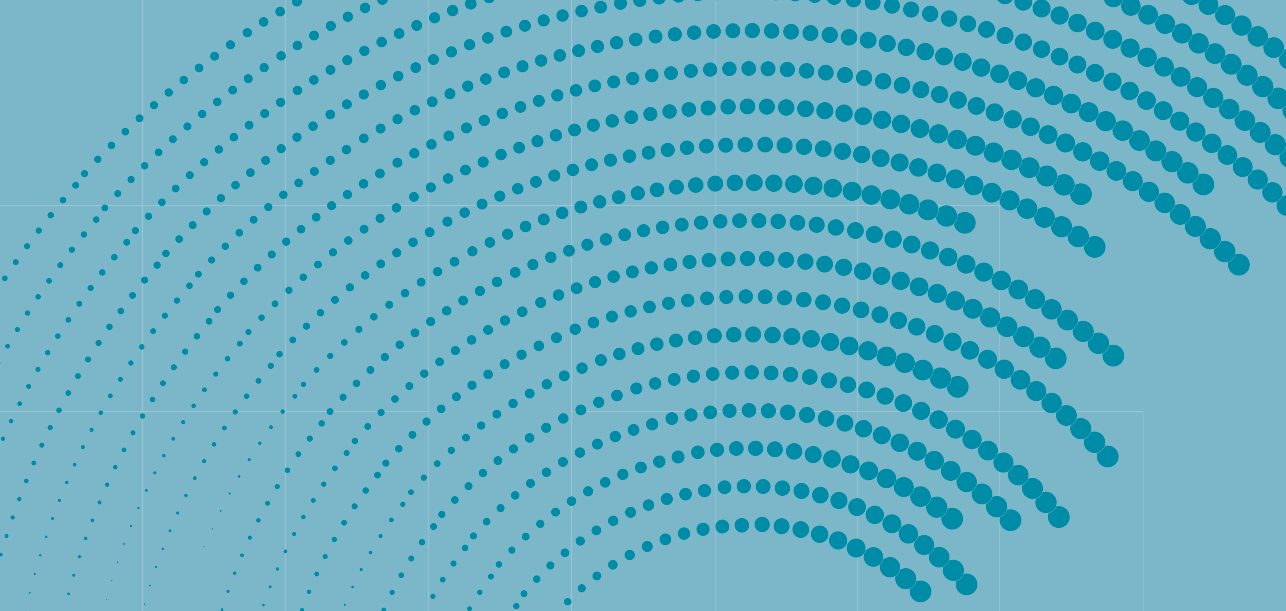
IV

통일교육의 방법	51
1. 효과적인 통일교육 진행을 위한 방향	52
2.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일교육’	55
3.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56

부록	61
· 통일교육 현장체험 장소 안내	62
· 국립통일교육원 발간자료	69
· 통일교육지원법	89







I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략)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의 실현의지와 태도 확립

분단이 70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며 통일을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일을 더 이상 민족적 당위성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해야 하는 민족적 당위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과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달성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한반도,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점 등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은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일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로, 이는 전쟁 등의 비극이 다시금 이 땅에서 되풀이 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일치된 자각과 동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명 의식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은 자유와 인권, 법치, 복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들을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삶의 풍요가 증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생활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가져야 한다.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을 더불어 살아갈 대상이자 민족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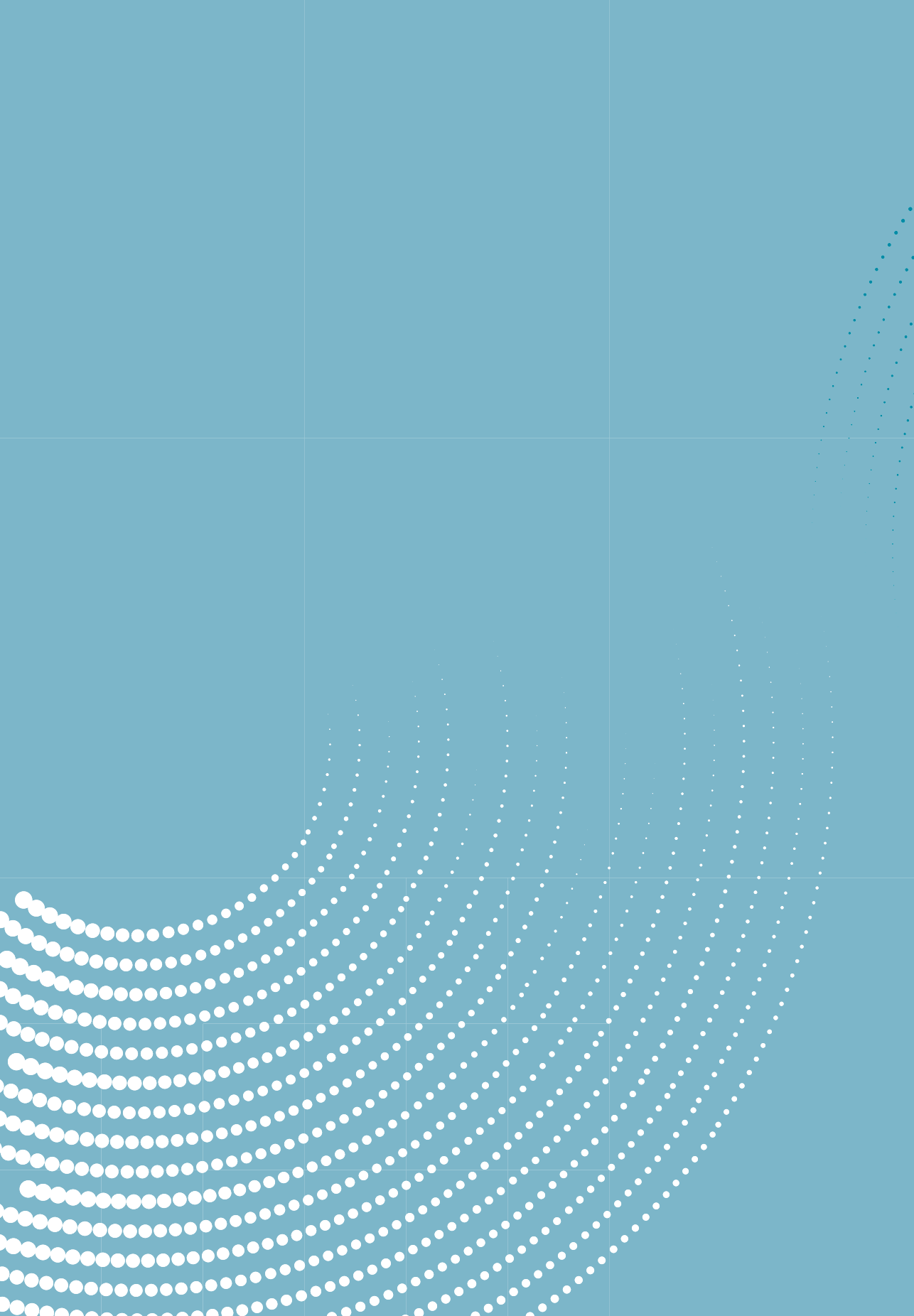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과정에서 민족 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개방과 소통의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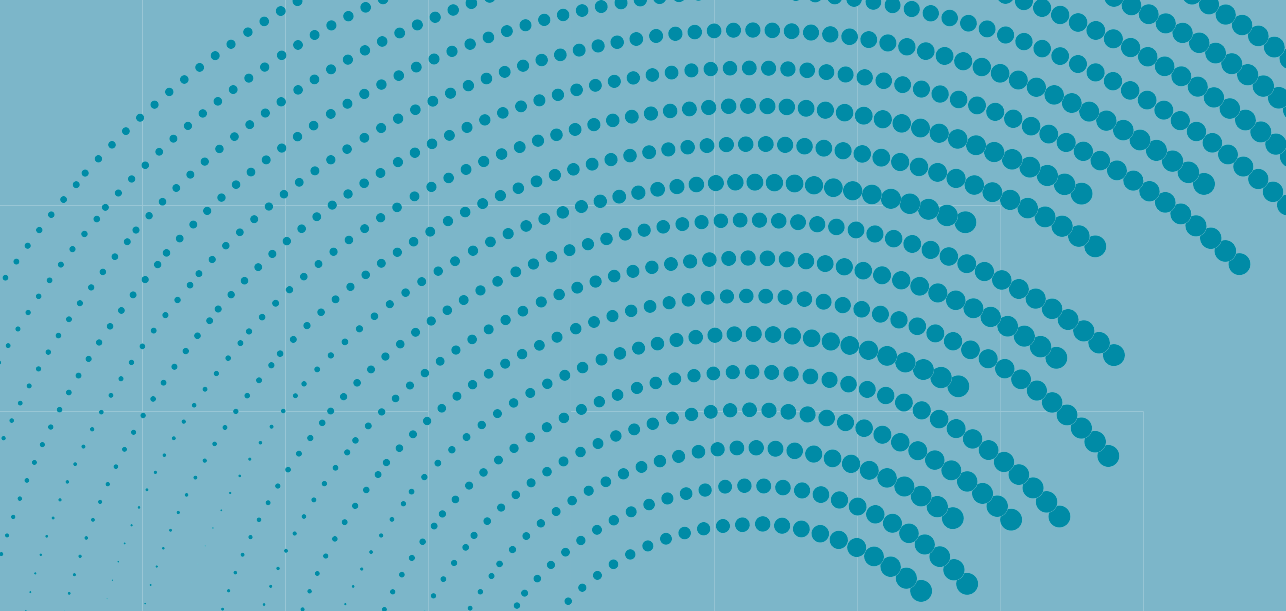
건전한 안보관·객관적 북한관 정립

한반도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도발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이 엄존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이러한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 공동체와 삶의 터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체의 안보위협 요소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제반 가치와 제도를 지켜나가려는 건전한 안보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전한 안보관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기초로 한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올 경우 북한은 우리와 함께 평화 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이다. 건전한 안보관을 토대로 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교육을 통해 건전한 안보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II

통일교육의 중점방향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정당을 비롯한 이익집단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통해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원주의 시민사회로 성장하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그리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법치,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통일 정부 형태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양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과 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2. 통일은 개인의 삶의 기회 확대와 국가 및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개개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넓은 선택의 기회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분단 구조는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인해 많은 자원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구성원의 고통과 손실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분단구조에 따른 상황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소모적인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통일로 인한 안보 위협의 해소는 한반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오고, 남북 경제권 결합은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_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에는 정전체제 속에서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일은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쟁 상태 혹은 북한 핵과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여 종국적으로 평화를 실현시킨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세계평화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통일은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 형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등으로 비약적 경제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통일에 의한 경제 번영은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대륙으로 확장되게 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일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이자 교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호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_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한은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서 주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단순한 재결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들은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지만,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자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뿐만 아니라 각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을 주변국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화해협력을 도모하면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5 _ 바람직한 통일달성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통일준비에 달려있다.

우리가 얼마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통일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남북관계 정상화 및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통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또한 남북통합 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사전에 정비하여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에 사전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제도적 통합을 넘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 과정도 포함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한 간의 실질적 통합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통일교육을 통해 한반도 통일 미래에 대한 국민적 의사 및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들이 통일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6 _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주변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 핵무기 개발 고도화 등 한반도는 복합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다각적으로 위협받는 냉엄한 안보 현실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다층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튼튼한 안보에 대한 강한 국민적 지지만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며 마침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7. _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랜 분단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통일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중단하고, 남북한이 남북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착실히 신뢰를 쌓아나갈 때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까지 달성해 나갈 수 있다.

남북 간 급격한 통합이 가져올 충격을 고려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체제의 차이,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 등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면서 통일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나간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점진적·단계적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8. _ 통일은 국민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일문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정보공개와 정책추진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은 무엇인지, 통일이 가져올 효용과 편익은 무엇인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등에 대

한 담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통일미래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9 _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북한을 협력의 상대로만 인식하면 북한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 간의 현실을 도외시킬 우려가 있으며,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좌절 시키고 남북 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주도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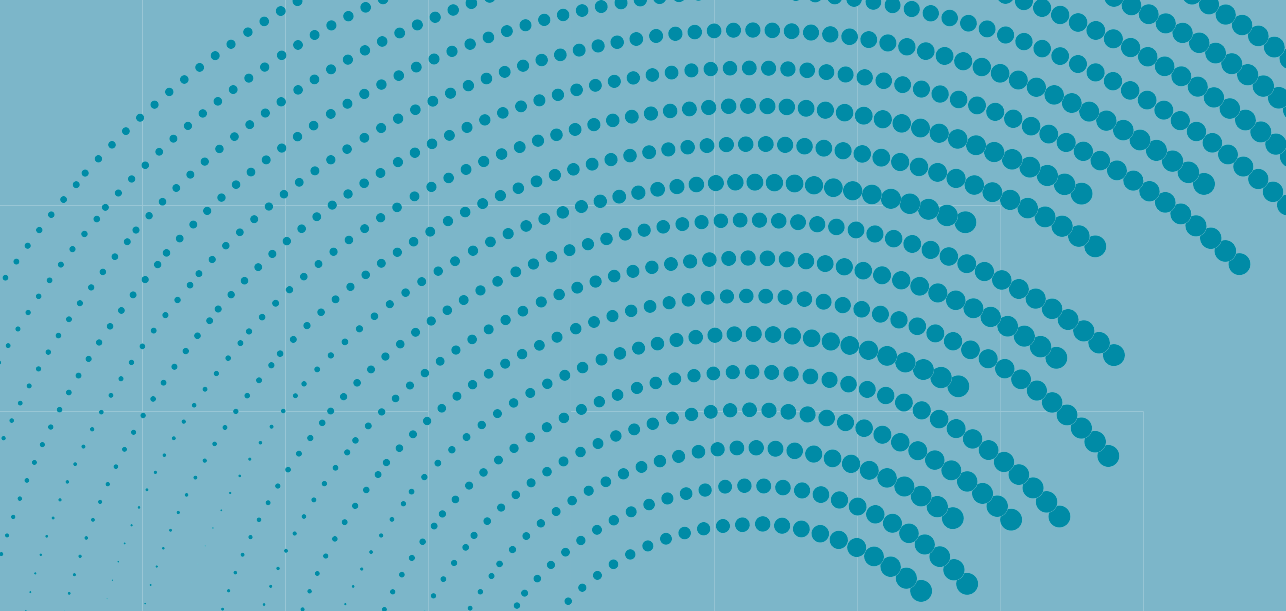
10 _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대외적 환경과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되고 있는 유일독재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당국이 체제선전을 우선하여 관영매체를 통해 실상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실제 생활모습, 의

식과 사고, 안전 문제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생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하며, 북한당국이 체제유지 과정에서 초래하고 있는 주민 인권침해 실상에 대해 인류 보편적 가치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등을 통일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III

통일교육의 내용

1. 통일의 이해

1)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분단 극복과 통일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등 주도적 노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의 과정은 주변국들의 개입 속에 진행되었고, 따라서 분단의 극복과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남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 통치에 의해 비롯되었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통해 민족 간 갈등, 대립이 심화됨으로써 공고화되었다.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달성하려면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이중적 특성을 감안할 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도 필요하다.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 역사적 당위성을 지니며 주변국들의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이들 주변국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통일도 통일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졌던 주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가능했다.

2) 분단의 배경과 성격

남북 분단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뒤이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 통치로 시작되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치열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던 우리 민족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1945년 8월 15일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에서는 미·소 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이 결의한 한반도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여부에 따라,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대립하게 되었고 독립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좌절되었다.

북한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가 거부됨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북한 지역에서는 이미 중앙정부 격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946.2)와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1947.2)가 설치되고, 헌법 초안이 작성되는 등 독자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결과,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출범하였다.

6.25전쟁으로 분단이 심화·고착화되었다.

북한은 남침을 위한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기습적 남침을 감행하였다. 6.25전쟁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무고한 국민들에게 대량 살상의 비극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 상호 간의 적대감을 심화시킴으로써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한반도 분단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3) 통일의 필요성

분단 한반도에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통일과 관련하여 과거와 같은 민족이나 당위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는 통일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자 당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기회 확대를 가능케 하고, 국가 및 민족공동체에게는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며,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통일은 개인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하다.

통일은 개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통일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

소하여 줄 것이며,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을 통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 대치 상태에 놓이면서 접경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일이 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유와 복지를 누리고, 인간 존엄성을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통일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 국가와 사회뿐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해 준다. 6.25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국토의 손실을 가져왔고, 분단으로 인한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저해해왔다. 따라서 분단에 따른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통일로 인한 안보 위협의 해소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오고 새로운 시장 확보를 통한 남북 경제권의 결합은 남북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공동번영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통일은 북한 주민의 안전을 증진시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인권, 평등과 복지 등 보편적 가치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 혹은 전쟁 위협을 제거하여 평화를 실현시키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정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시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토대가 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 형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과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천연자원·노동력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통일은 남과 북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있다. 통일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단절되어 있던 한반도의 남과 북을 연결하여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육·해·공로 건설을 완성함으로써 동북아 국가 간 경제권 형성과 역내 교류·협력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통일 한반도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4) 통일의 비용과 편익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와 제도, 생활수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통일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성 비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통일 비용은 남북 간 격차를 줄이고 남북한이 각각 보유한 자원의 연계·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사전적으로 지불하는 보험이자 투자이다.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다.

분단비용은 남북이 분단되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으로, 대표적으로 국방비나 체제경쟁을 위한 외교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이나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분단비용은 통일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기가 커지는 지속적 성격이 있는 반면, 통일비용은 통일 전후 시점에 발생하는 한시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많다.

통일은 통일비용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통일편익을 가져온다. 통일편익은 통일로 인해 분단비용 해소, 시장의 확대,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등의 경제적 편익 뿐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전쟁위협 해소 등 비경제적 편익도 포함한다.

2. 북한의 이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즉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북한의 정치

■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은 역대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견지해 왔으며, 김정은 시대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 지도이념,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해 왔다. 2000년대 이후 군을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 체제를 운영하면서 2009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추가하였다.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하였으며, 2019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대체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노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이며, 노동당에 의한 일당 독재체제이다.

북한은 당-군-국가체계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통치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정치체제인 ‘1당 독재체제’이면서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이다.

북한의 수령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한정된 칭호이다. 2016년 개정헌법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하였다. 김정은은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같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2021년 이후 북한매체에서는 김정은에게 수령이라는 호칭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수령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조직과 기구, 모든 인민들이 절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구조이며, 유일지배 이념을 통해 1인 통치를 정당화한다. 또한 통치자에 대한 우상화를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통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독재정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2) 북한의 군사

■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

북한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오랫동안 북한에서 군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인민의 군대’였다,

2021년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이 표현들을 삭제하고, 군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영도 밑에 진행 한다’고 하여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국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다. 정전협정 이후 군수공업 발전에 집중해 왔으며, 장거리포,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주력해 왔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 등에서 교육받은 핵개발 전문 인력과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이용하여 1980년대 들어 영변에 원자로를 가동하는 등 핵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90년대는 핵연료 확보에서 핵폐기물 재처리까지 핵개발과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였고, 2003년 8월부터는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을 파기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병진노선을 채택한 후 4차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 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성능 개선과 남한에 대한 전술핵 무기의 개발·선제사용 위협을 지속하는 등 ‘핵 포기 불가’, ‘핵능력의 질량적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핵 선제공격을 명문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했으며,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대남 대외 강대강 및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 원칙을 밝히면서 핵무력 증강, 전술핵 무기 대량생산, 핵탄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 대남 핵공격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3) 북한의 경제

북한의 경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장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이중경제구조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획 경제하에 시장 운영을 공식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래로부터 확산하고 있는 북한의 시장은 경제주체인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이 계획지표 생산에 필요한 생산 물자를 조달하는 창구인 동시에, 사경제활동을 통해 가계경제를 유지하는 주민들

의 자립적 생존 장터이다.

북한의 경제는 시장화 현상이 고착됨에 따라 계획경제 영역이 위축되고 시장을 통해 개인 수중에 부가 집중되는 불평등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 ‘상업개혁조치’를 통해 상설 종합시장 운영을 허용하였으며, 김정은 시대에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의 더욱 심화된 개혁적 경제관리 정책을 시행하여 국영기업소의 자율경영권한을 부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전면적이며 적극적인 개혁·개방, 제도적인 경제개혁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외경제 부분에서도 1991년 나선 경제무역지대 설립을 시작으로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29곳에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설립할 것을 공표하였으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현재 나선 경제무역지대만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초래하여 외부 자본의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어 향후에도 북한의 경제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북한의 사회·문화

■ 북한의 사회

북한사회에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주민의 생활과 의식이 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기 이전 주민의 일반적인 생활모습은 비록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은 국영상점에서 공급받거나 구매하고, 식량은 국가로부터 배급받으며, 국가가 지어서 배정한 주택에서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을 거친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의식주를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에서 개인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소유와 시장기구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이해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영향력이 강하다면, 국가·협동적 소유와 계획기구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집단주의」의 영향력이 강하다. 하지만,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국가나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개인과 가족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가 성장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장화 진전은 북한사회 계층·계급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는 국가가 주민에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을 부여하고, 이러한 성분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 기회, 직업 배치, 재화 분배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불평등하고 폐쇄적인 계층구조가 고착돼 왔다. 그런데 시장화

가 진전되면서 소득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확산되고, 경제력을 수단으로 삼은 수직적 계층이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농민이라는 양대 계급 중심의 계급구조도, 시장에서 축적한 화폐를 이용해 사적 경제 활동을 하는 ‘돈주’가 등장하면서 변화하는 중이다.

■ 북한의 문화

북한의 문화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에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이 가미되어 있다.

북한은 북한식 사회체제에 부합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해왔다. 즉,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문화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가미된 것이다. 북한은 문화 예술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고, 노동계급화하며, 전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적인 다양성보다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교양 수단으로 군중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군중문화 활동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일반 대중들이 직접 참여하여 군중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는 활동으로 사상교양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및 기관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기동선전대’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소조’가 있다. 군중문학예술작품은 근로자들이 직접 제작하여 예술적 형식이 통속적이며, 당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선동성이 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5) 북한 주민의 인권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반인류적 전쟁범죄와 대규모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을 계기로 인권 문제를 일국의 국내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했다. 인권은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 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생존권, 사회보장권, 환경권,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은 2003년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매년 채택해오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2004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2013년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2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세히 알려졌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설립 직후 1년 여 동안 북한 인권 피해자 및 기타 증인들과의 비공식 면접, 서울·도쿄·런던·위싱턴 등에서의 공청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했고, 조사 결과를 북한 정부에 제공하기도 했다.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시민·정치적 권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공식 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에는 성분 제도라고 하는 차별 시스템이 존재하며 여성 차별도 만연해 있다. 북한 주민은 국가에 의해 어디서 살고 일할지를 강요당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고, 북한 주민 중 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여전히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감금된다. 탈북 과정에서의 총격, 구금시설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절도, 마약거래, 음란물 제작·유통 등 광범위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사형 집행으로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을 주민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분 제도에 기초해 식량에 대한 접근 및 배분에 차등을 둔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균형한 접근성, 개인의 불법 의료행위 만연, 불충분한 예방의학 등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부족한 교육 시설과 장비, 교육기회 차별, 학습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교육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은퇴한 고령자, 질병·장애로 생계가 곤란해진 자, 산재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이 미비해 사회보장권도 침해받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으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 과거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제사회는 여성, 아동,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 인권 침해 조사와 개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북한인권보고서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설됐다. 2022년 12월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였다. 특히 타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정보제공 촉구,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인도적 상황 악화, 타국의 백신지원 제안에 협력 촉구 등이 새롭게 결의안에 추가되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론화에 노력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해오고 있다.

3. 통일환경과 통일정책

1) 국제 정세와 동북아 정세

■ 국제 정세

한반도 정세의 기본 환경인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증대하고 있다.

중국·인도 등 신흥강국들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급격히 좁혀감에 따라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은 방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동맹 및 우방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익에 따라 대립과 협력이 혼재하는 양상으로 상호 경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국제질서의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 정세에서 지정학적 요소와 국가 정체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러시아와 미국·서구 간 지속해 온 지정학적 갈등과 각국이 지향하는 정체성의 대립이 배경에 놓여 있다. 동북아에서 대만 문제 또한 중국과 주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추구하는 미국은 동맹과 함께 다자주의적 가치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화주의와 사회주의 정체성, 러시아는 슬라브주의를 제창하면서 민족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강대국들 간에 발전모델을 둘러싼 경쟁과 대립은 가치의 진영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발전 모델을 통해서 세계를 주도해 왔다. 중국은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성장과 안정의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발전모델을 둘러싼 경쟁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의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 진영은 경제 경쟁을 넘어서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제질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끼리의 블록화 및 동조화와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이 서로 결집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서 각기 따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군사안보와 경제 문제가 결부된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확산된 코로나19가 국제질서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경 봉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강화, 국가 간 협력과 다자 간 협조주의의 후퇴, 그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와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왔으며, 국가 간 탈동조화, 국제질서의 블록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 동북아 정세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경제·첨단기술·가치·체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해 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되 첨단 기술, 민주주의, 인권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동북아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며 중국에 대한 견제도 지속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국은 기후 변화, 비확산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과 대화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의 대립과 경쟁은 향후 동북아 질서의 가장 실질적이고 커다란 변동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일본과 중국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동북아 및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양국 관계는 커다란 시험을 받고 있다. 양국은 역내 전략적 경쟁관계와 해양(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역사·대만·방위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근본적인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양국은 2020년 홍콩 국가안전법 문제 등에서 긴장과 갈등 양상을 보였으며, 2021년 이후 영토, 역사문제와 더불어 반도체·전자산업 등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보다는 갈등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중층적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의 정세는 2020년 이후로 미중 갈등 격화, 북·중·러 간의 전통적인 관계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들 간 관계 강화 등으로 동북아 역내 정세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중층적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진영 간 결속과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추세에 있다.

2) 남북관계

■ 남북관계의 성격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와 민족내부 관계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도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남북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주권국가로서 UN헌장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개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화해협력, 신뢰증진 등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해야 한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기존의 남북 간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 낸 노력의 결실로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남북이 기존에 체결한 합의를 존중할 때, 남북관계는 그 기초 위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이 매번 다시 출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역대 정부가 체결한 남북 합의는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이며, 남북관계 발전과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함께 이행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단 이래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오고 있다, 이제는 상호 대립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한반도에 화해협력과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남북관계

역사적으로 남북관계는 갈등과 긴장, 협력과 대화를 반복하고 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갈등과 긴장, 협력과 대화를 반복하여 오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발생해 왔던 갈등과 대결의 사례들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 주었다.

6.25전쟁을 시작으로 1960년대의 무장공비 침투사건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3년 ‘KAL기 폭파 사건’ 등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과 긴장 조성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유엔 동시가입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으나, 1993년부터 북핵 위기로 인해 다시 남북관계는 갈등과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일으켰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모두 5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경제, 인도주의, 사회문화 등 분야별 회담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도 하였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2018년 「관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합의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2021년 이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며 군사적으로 다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특수한 관계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교류협력을 함께 해야 하는 상대이다. 또한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와 민족 내부 관계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특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객관적 현실에 맞게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

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적 개선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우리의 통일은 ‘선 평화정착, 후 평화통일’의 기초를 토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등을 추구하고 있다. 진정한 통일은 영토와 제도 통합을 넘어 민족 구성원 모두가 문화와 의식면에서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질 때 달성되므로 정부는 점진적 방법을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과도기를 거쳐 기능적으로 통합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통일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같은 정책수립과 연계하여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이어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정립되어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계승·발전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위에 있으며, 통일 접근시각으로서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오직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민주적 통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단계적·점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을 운영하게 된다.

‘통일국가 완성’ 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 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통일국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국가가 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2024년이 되면 만들어진 지 30년이 되게 된다.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변화된 통일환경과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재점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목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지난 30여년 간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우선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해나가고, 남북 간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경제·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담대한 구상」에서의 남북 간 경제협력은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하면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대북 정책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어 내하고자 한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통일·대북정책의 비전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체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3대 추진원칙과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3대 추진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을 불용하고, 호혜적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적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통일준비라는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4. 통일 비전과 과제

1) 통일 미래 비전

통일한국은 한반도에서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분단비용 해소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제약과 구속에서 벗어나 남북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복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넓은 선택의 기회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분단 상황에서 투입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분단비용’을 복지와 교육 등 다른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청년 세대가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통일편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연결되는 지리경제학적 경쟁력을 되살려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이끌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 형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남북한의 서로 다른 산업구조와 특성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은 남북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이어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국제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통일의 긍정적 효과가 남한과 북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게도 실용적 혜택이 공유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은 전쟁 위협 제거와 평화 정착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한반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으로 안보가 불안한 상황은 한국 경제와 시장 역량을 저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을 통해 전쟁 위협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민간 투자와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매력도가 상승하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격상된 한국의 위상과 국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긴장 해소에 앞장서는 등 다자 안보협력체제를 정착시키는 ‘평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중추국가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을 위한 과제

자유민주주의 가치 제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생활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 사회 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성숙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때 북한 동포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시키고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

국민의 통일인식이 낮은 상황에서는 통일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돼 남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이러한 교류협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하면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일인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통일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구축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현실화시켜 다양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의 경제·사회·문화적 기반을 튼튼히 쌓아나가야 한다.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통일의 경제적 기반 구축 과정이라면,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는 통일의 사회·문화적 기반 구축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남북 산업 및 인프라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해야 한다. 남북 주민 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한국사회 안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포용과 관용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주민 간 만남과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통일 관련 법·제도 정비

통일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 통일은 결과와 과정 모두 중요하다. 대한민국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따를 경우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 단계 등 각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통일 과정을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한반도의 법·제도가 국제적인 법·제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통일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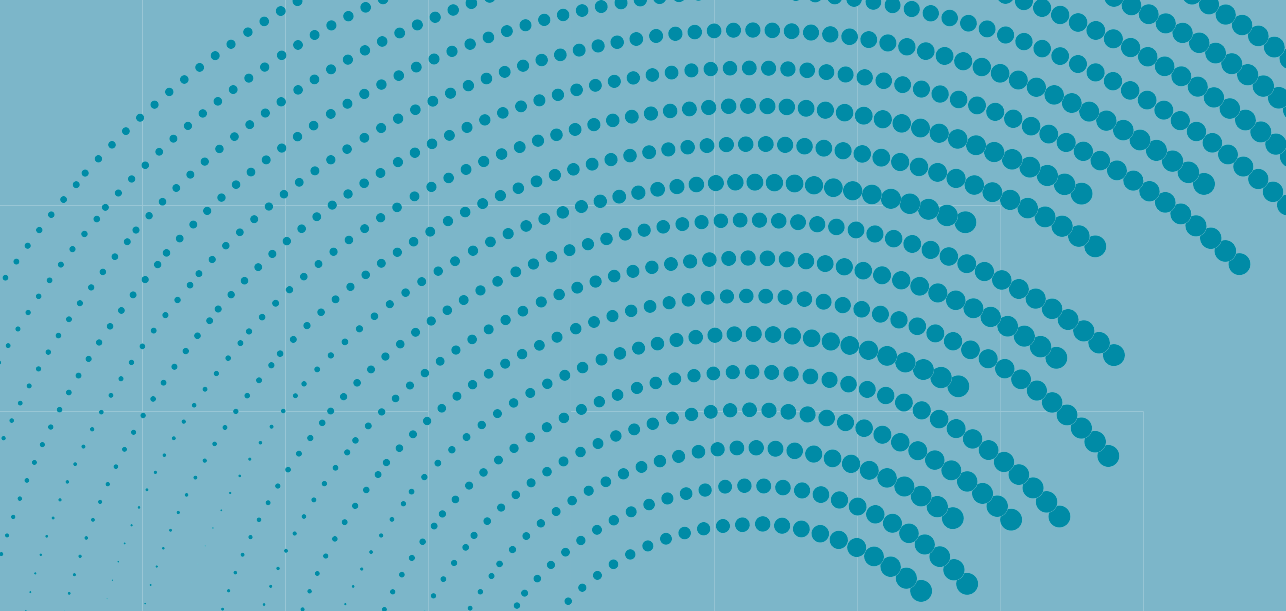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적응 못지않게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나아가야 하는 두려움, 남한 주민의 편견과 차별의식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은 남북 제도통합의 과정인 동시에 남북 주민이 부정적 선입관, 편견, 차별의식 등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공존하는 사회통합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향후 남북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오늘날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이해가 얽혀 있는 지역이므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통일은 남북 분단체제의 해체인 동시에, 20세기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동북아시아 질서의 대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문제라는 성격도 갖는다. 국제통일 대화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통일이 자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변국들의 안전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대 정부’로 행해지는 전통적 외교 외에 공공외교라는 수단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통일을 주도할 미래세대 양성

청소년과 2030세대 등 미래세대가 통일과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 한반도의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통일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많은 젊은이가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 통일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통일의 혜택이 자신과는 무관한 비현실적 꿈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통일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 잡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대북정책의 혜택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단계에서부터 바로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가 통일로 인한 혜택을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통일·대북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및 창업 등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V

통일교육의 방법

통일교육은 목표와 내용에 맞는 적절한 지도방법과 결합될 때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일교육의 방법은 대상의 특성(수준, 관심 등)을 고려한 교육내용과 내용 전달을 위한 효율적 방식 선택, 효과적인 기자재의 적절한 활용 등을 포함한다.

1. 효과적인 통일교육 진행을 위한 방향

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와 사실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어야만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나아가 해당 이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공식적 문서나 언론 보도에 대한 전달은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연계되어야 하며 북한 체제의 특수한 현상은 자유·인권·법치·평화 등 인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에 기초하여야 한다.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국립통일교육원의 자료마당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 열린 대화와 토의 중시

통일은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립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 나가야 하므로 대화와 토의문화의 정착은 통일의 선결 조건에 해당된다.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해 상이한 의견이나 논점에 대한 열린 대화와 토의는 학습자들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태도를 갖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열린 대화와 토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그 예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활용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야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는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준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예로 학생들이 생활 속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주도 또는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면,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외 “남북한이 통일되었다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남북한이 통일국가라면 갖고 싶은 직업은?”, “백두산으로 여행을 가려면 갈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등의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라. 현안 쟁점과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

통일교육의 대상이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교육 기법이 바람직하다. 현안 쟁점이나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은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드라마나 영화, SNS 등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도 수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분단국의 교류협력 및 통일사례가 주는 시사점 등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들이다.

마. 기술적, 공간적 환경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

통일교육도 기술적 발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환경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습 방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새로운 환경 요인은 공간적 장애를 극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메타버스 기반의 새로운 교육 환경은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에서도 공간적 제약 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의 융합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오던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성은 최대한 살리되, 새로운 학습자들의 성장 환경 요인을 반영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 예로 온라인으로 미리 선행학습을 진행한

뒤 수업 시간에 토론과 적용을 실시하는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과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일교육'

학습자의 관심은 나이에 따라, 성장과 발달의 단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집단의 특성이나 전문성에 따른 맞춤형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즉 연령, 학력, 직능, 성별에 따라 적절한 교수내용을 선정하고 적합한 교수 기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는 교사의 교육방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저학년의 경우 생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단계를 고려하여 이야기나 놀이, 체험형 방식을 활용하여 공감 능력과 감수성을 키우도록 한다. 고학년으로 가면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지적인 충족을 위해 균형적인 정보 전달과 토론식 접근, 나아가 유사 체험 및 견학 활동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을 함양하며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는 이미 취득한 통일·북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자율적인 사고, 능동적인 탐구가 가능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거대 담론에도 영향을 받으며, 성인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심도 있는 토론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고려하고 현실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은 '분단 비용 절감'이나 '더 강한 국력' 등 향후 우리가 추

구할 국익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통일·북한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해야 한다. 시청각교육, 현장체험학습, 토론식 수업 등 자기 주도적 열린 방식의 교육을 적극 운용하고, 디지털 세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체험 및 통일한국 구상 등 첨단 학습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한편 성인 대상 통일교육은 대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등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특성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폭넓은 주제와 내용을 다루되 논리적이며 심도 있는 토론식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이념, 젠더, 세대 간의 내적 갈등들을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극복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이주민과 귀국 동포 등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상호문화주의 감수성을 높이는 대화교육방법으로 지역 공동체성 확립을 도모하도록 한다.

3.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강의식 교수법은 교수자의 능력에 따라 짧은 시간에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지식의 전달이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강의식 교수법의 장점을 적절히 살리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

자가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통일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영상 세대, 미디어 세대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통일·북한 관련 애니메이션이나 공감 영상 또는 뮤직비디오와 동화 플래시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있는 통일 게임과 플래시, 통일 노래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이것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에듀테인먼트(Eduainment)형 통일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행사를 통한 통일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통일과 연관된 체육 행사를 포함하여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는 각종 이벤트 중심의 통일교육을 함으로써 재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통일·북한과 관련된 OX 퀴즈, 통일 골든벨, 낱말 풀이 퍼즐, 보드게임, 통일 달리기, 통일 씨름대회 등을 활용하거나 통일 노래, 율동,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능동적 소통뿐만 아니라 학습자간의 참여와 능동적 소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가상현실(VR), 메타버스, QR코드 또는 증강현실(AR) 등을 통일교육에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웹상 토론이나 통일 UCC 만들기, 웹기반 설문조사와 투표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수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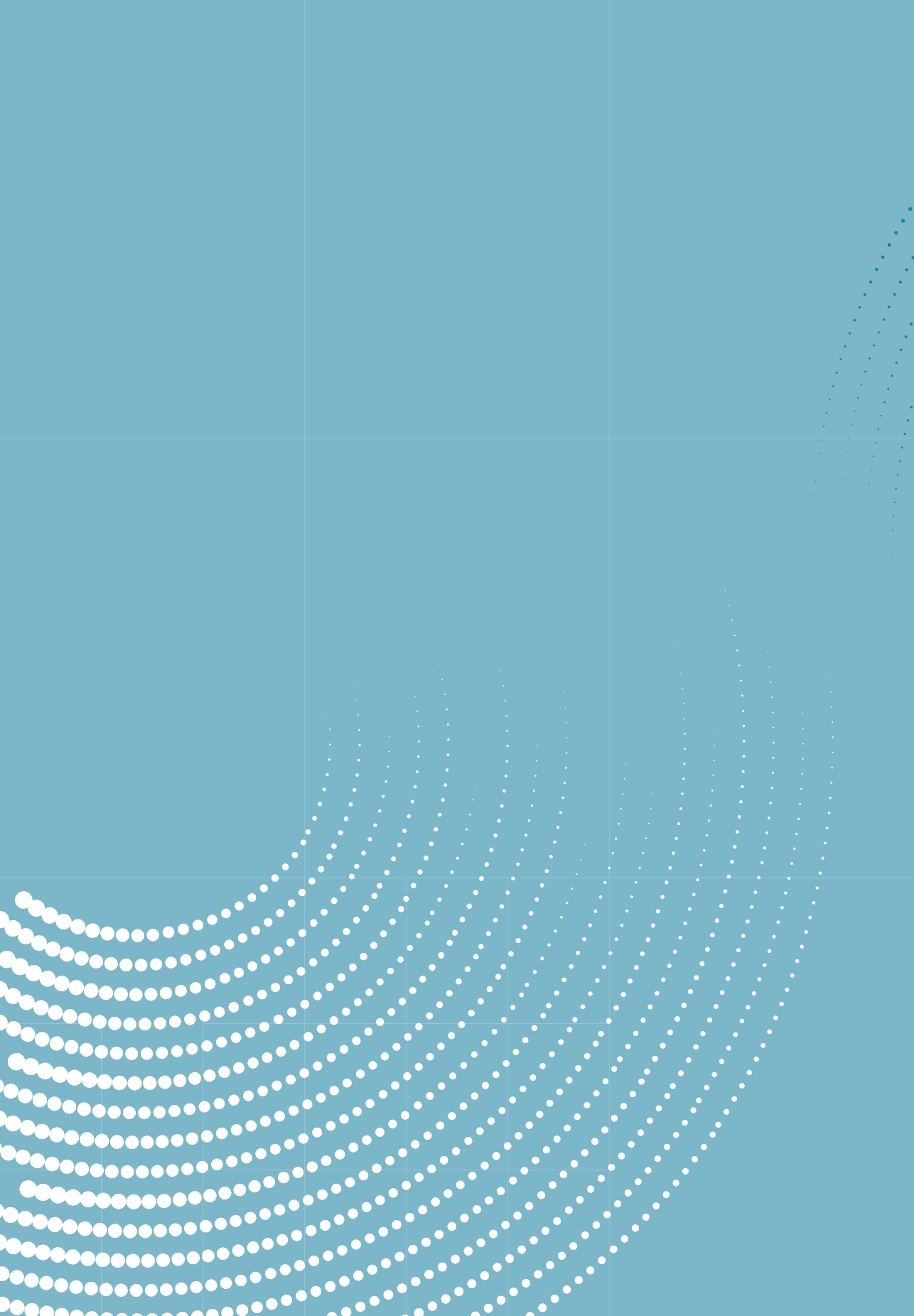
넷째, 혼합형 학습을 통한 통일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온라인으로 미리 통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통일·북한 관련 선행학습을 진행한 뒤 수업 시간에 토론과 적용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든 뒤 서로 질문하며 토론하는 하브루타 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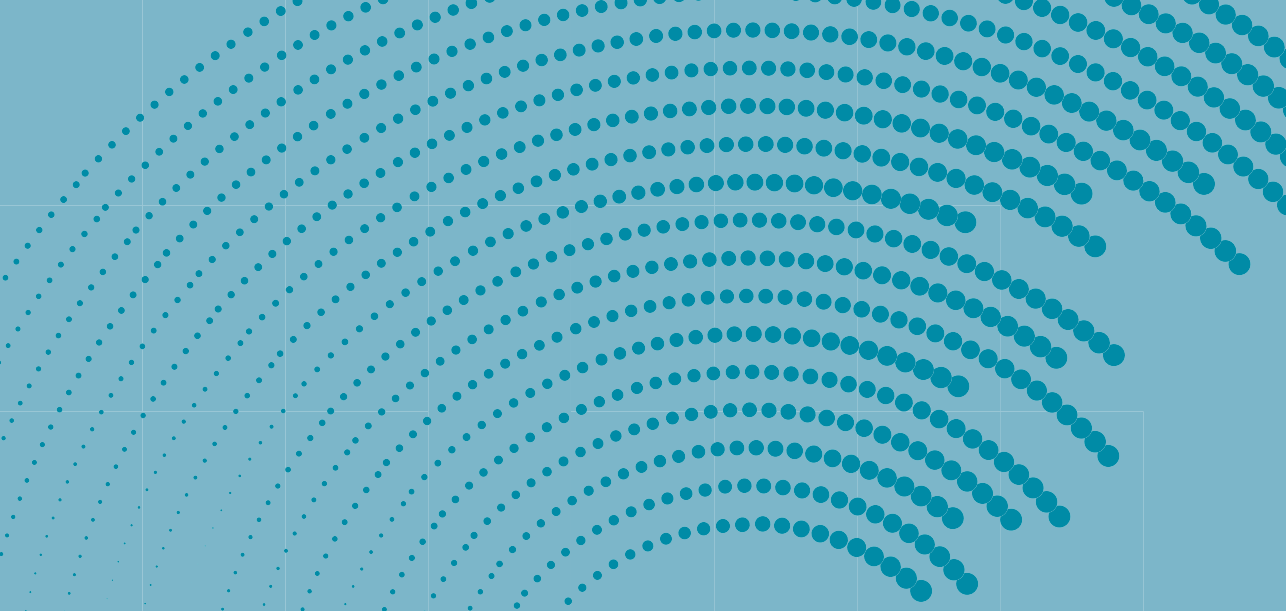
다섯째, 소집단 또는 협동학습을 통한 통일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 간 협동을 통한 효능감을 높이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의 통일과 관련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림·만화 그리기, UCC 만들기 등 다양한 조별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교사는 협동학습의 과제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집단 내의 상호 의존적 활동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생들 자신들이 실제의 상황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통일관을 견학하거나,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제진역 PTX 평화통일열차 등 DMZ 인근 통일·역사 체험관을 탐방할 수 있다. 또는 학교·동아리·가족 단위로 지역사회의 통일 관련 명소를 탐방하거나 통일 캠프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일곱째, 이야기하기나 담론을 통한 통일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통일과 관련하여 어떤 사건이나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역사적 맥락 등을 통하여 흥미를 제고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 오랫동안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유경험자들과 대화 또는 특강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통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대북인도지원 또는 남북경협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의 방식도 있다.





부록

통일교육 현장체험 장소 안내

1. 오두산 통일전망대

가. 개요

-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 임진강(강폭 460m)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분단의 현장
 - 개성직할시 관문군 관산 지역의 주민과 인민군 등 조망 가능
 - 각종 전시자료와 북한 영상실 구비

나. 관람안내

(1) 관람시간 * 매주 월요일 휴관

- 09:00~17:00 : 3월~10월
- 09:00~16:30 : 11월~2월

(2) 관람내용

- 남북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한 남북 관계사
- 통일 관련 정부정책 홍보
- 이산가족의 아픔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 한반도 통일 미래상

- 통일 관련 미술작품 기획전시실
- 2층 북한영상실
- 육안 및 망원경으로 북한지역 조망

(3) 교통 편

- 승용차
 - 강변북로→자유로, 올림픽대로→행주대교→자유로→오두산 통일 전망대
 - 구과발→통일로→금촌(통일동산)
- 대중교통
 - 열차 : 경의선(서울역→금촌) 이용 시 금촌역 하차 후 036번 버스 이용
 - 버스 : ① 2호선 합정역(2번 출구에서 2200번 버스를 이용 성동 4거리 하차 도보 10분, 통일주차장에서 셔틀버스 이용
② 서울역앞(9709번, 909번)→금촌→마을버스 이용(1-2번, 1-3번)

(4) 안내전화 : (031)956-9600

2. 지역 통일관

가. 개요

- 국민들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및 올바른 북한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국 13개 지역에 통일관을 설치, 운영
- 북한실상,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 관련 자료 등 전시

나. 전시실 구성

- 북한실 :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현황자료를 담은 전시 패널, 북한주민 생활용품 등 전시(살림집, 교실)
- 통일실 : 남북한 통일정책 및 주요 현안문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현황, 남북공동생산물품 등 전시
- 시청각실 : 최근 북한동향, 북한영화 및 북한위성방송 관람
- 특수자료실 : 북한 관련 서적, 노동신문 및 북한잡지 등 전시

다. 관람안내

(1) 관람시간

- 11월~2월 : 09:00~15:00
 - 3월~10월 : 09:00~18:00
- * 각 지역 통일관 사정에 따라 월요일 또는 화요일 휴관하거나 연중무휴 개관

(2) 관람신청

- 일반단체 : 전화 및 서신 신청
- 문의전화 : 각 지역 통일관 안내전화 참조

라. 지역 통일관 현황

지역	위치	개관일	연락처	휴관
고성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내	'88.6.16	033)681-0885	연중무휴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96.8.14	033)481-9021	매주 월
철원	강원 철원군 철의 삼각지	'90.12.15	033)450-5558	매주 화, 명절 연휴, 신정, 어린이날
인천	인천 남구 수봉공원 내	'94.12.15	032)868-0113	매주 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내	'92.9.8	031)945-3171	4~10월(무휴) 11~3월(월 휴관)
대전	대전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 내	'01.8.11	042)866-5046, 5164	매주 월
청주	충북 청주시 청주랜드 내	'93.2.23	043)2256-5050	매주 월 명절
광주	광주 서구 화정2동	'89.3.10	062)385-1301~2	매주 월, 토 휴관
부산	부산 부산진구 자유회관내	'89.1.30	051)808-7960~3	연중무휴
경남	경남 창원시 자유회관 내	'98.4.29	055)282-2332~3	연중무휴
제주	제주시 탐라자유회관 내	'93.12.18	064)751-0191~2	매주 일 명절 연휴
충남	충남 공주시 웅진동 98	'07.4.5	041)881-1212	매주 일, 명절 연휴
서울	서울시 구로구 공동 35번지	'08.10.29	02)2613-5556	매주 일 공휴일

3. 통일교육 자료센터 안내

가. 개요

- 목 적 : 원내 교육생 및 통일교육 전문가 등 통일교육 정책고객에 대한 ‘양질의 정보자료 서비스’를 제공
- 개관일 : 2017년 7월 12일
- 장 소 : 국립통일교육원 제2교육관 1층(396㎡)
- 시 설 : 열람실, 특수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미디어열람석, 서가, 자료검색코너 등으로 구성

나. 장서 구성

- 장서목표 : 총 3만여 권
- 소장자료 현황

(2022.12.31. 현재)

구분	세부 내용	건수
통일·북한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발간물 • 통일연구원 발간물 • 통일·북한 관련 연구자료 등 	11,000여권
북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중앙년감, 백과사전, 교과서, 저작집 등 단행본 • 로동신문, 민주조선, 교육신문 등 정기간행물 • 북한영화 등 시청각자료 	3,000여권
원문정보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발간물 원문정보 • 통일연구원 발간물 원문정보 • 북한신문 등 기사색인 	1,900여건 1,400여건 700,000여건

다. 이용 안내

- 이용 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 점심시간 12:00~13:00
- 자료 열람
 - 단행본·정기간행물 : 열람실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 웹 DB 및 국회도서관 원문DB : 일반 검색 PC에서 열람
 - * 웹 DB :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북한학술정보(CNC) 등
 - 북한자료 원문DB : 지정된 PC에서만 열람
- 자료 복사 : 복사는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부분 복제만 가능하며, 복사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복사를 제한할 수 있음.
 - * 다만, 특수자료는 통일부 ‘특수자료취급 및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만 가능
- 자료 대출
 - 대상 및 자격 : 원내 교육생 및 국립통일교육원 직원
(일반자료) 통일교육자료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특수자료) 통일부 ‘특수자료취급 및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 교육원 교육생, 통일교육단체 구성원 등
 - * 추천서는 1년 단위로 갱신,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함.
 - 대출 자료 : 단행본만 가능
 - * 정기간행물 및 사전류, 법전 등 참고자료는 대출이 제한
 - * 2권 이상 있는 단행본만 대출 가능
 - 대출 가능 책 수 및 기간 : 1인 5권 2주일
 - * 원내 교육생의 대출기간은 교육과정 종료 전까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이용 안내

- 개관일 : 1989.5.22.
- 소장자료 : 북한자료 3만여 권, 통일·북한관련 자료 8만여 권 (총 11만여 권)
* 단행본,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DVD), 마이크로필름 등
- 주요 이용서비스 :
 - 자료 열람·복사·대출 및 북한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 지원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http://munibook.unikorea.go.kr>)
 - 북한 영화상영
- 이용시간 : 평일(월~금) : 09:00~18:00
※ 2째, 4째 월요일, 토·일요일은 휴관(국가공휴일 포함)
- 위치 : 국립중앙도서관 5층, 연건평 300평(서초구 반포동)
* 지하철 2호선(서초역 6번 출구), 7호선(고속버스터미널역 5번 출구)
- 문의 전화 : (02)730-6658, (02)720-2429

국립통일교육원 발간자료

1. 도서 자료(2019~2022년)

2022.12.31.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비고
기본 교재	통일문제 이해	매년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 역사 속에서의 통일, 남북관계의 전개,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통일방안, 한반도의 비전과 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북한 이해	매년	북한 이해의 관점,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대외정책 및 관계, 군사전략과 군사력, 경제 현황과 변화, 교육과 문화, 사회와 주민생활 등 북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	
유아용	남떡 북떡 쓱떡쓱떡	2022	떡을 좋아하는 남쪽 북쪽 동물들이 남북 사이에 있는 '사이 큰 숲'에 모여 정겹게 노래 부르며, 떡을 쿵덕쿵덕 만들고 쓱떡쓱떡 나눠 먹으며 즐기는 과정을 표현한 동화책(동요 7곡 포함)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그래! 달라도 괜찮아!	2021	명절을 맞아 남북의 동갑 친척 아이들이 만나 익숙하고 낯선 음식·놀이문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내용을 따뜻한 그림체로 표현한 동화책	
	사라진 마법의 구슬	2020	구슬 기차·순천을 소재로 사용하여, 남·북 어린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내용을 따뜻한 그림체로 표현한 동화책	
	캠핑 가는 날	2019	남과 북의 어린이가 캠핑을 통해 진정한 친구가 되는 내용을 따뜻한 그림체로 표현한 동화책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비고
초등용	사계절 탐험대 : 평양에서 1년 살기	2022	[저학년]어린이들이 흥미롭고 창의적인 활동·놀이를 즐기며 통일·북한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놀이북	
	출발! 한반도 평화 탐험대	2021	[저학년]어린이들이 흥미롭고 창의적인 활동·놀이를 즐기면서 통일·북한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놀이북	
	출발! 한반도 여행 탐험대	2020	[저학년]어린이들이 흥미롭고 창의적인 활동·놀이를 즐기면서 통일·북한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놀이북	
	보니하니 톡톡 통일퀴즈북	2019	[저학년](보니하니 톡톡 퀴즈북의 국립통일교육원 특별판) 통일 관련 상식을 5가지 테마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퀴즈북	
중고 등용	AR 통일교육 교재「통일봄」	2022	AR앱·활동지·4가지 주제(△화해·협력을 위한 남북의 노력 △갈등과 긴장의 남북사 △철길 따라 만나는 북녘의 삶과 풍경 △분단의 극복과 통일한국 미래상)의 포스터를 통해 학습자가 사진·영상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학습자료	
	청소년 통일사전	2022	2018년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의 개정판으로 청소년들이 북한 및 통일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사전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집	
	Doing Hope : 공감과 연대의 사회를 위하여	2021	우리 사회에 만연된 차별과 혐오, 환경·불평등 문제 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 삶의 양식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담아낸 책	
	사회적 대화 활용 중등용 평화통일 교육 교재	2021	숙의 토론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화 및 통일, 북한 등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중등용 교재	
	Doing Peace : 평화, 나날이 한 걸음씩	2020	청소년들이 평화통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청소년 워크북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비고
대학생 · 성인용	「손안의 통일」 한반도 운명: 두 개의 특이점	2022	통일은 교통, 주택, 화폐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준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문명적 혜택을 향유하는 통일이 필요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섬으로 간 전쟁, 섬에서 만난 평화	2022	기행·인문·역사를 결합시킨 융합 콘텐츠로서, 평화와 통일의 시각에서 남과 북의 여러 섬에 담긴 이야기를 미래지향적으로 흥미롭게 소개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읽는 남북한 교류 협력 이야기	2022	전 지구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감염병을 한반도 차원에서 조망하고,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남북·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감염병 대응 협력 사례 소개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2022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해 장기간의 분단에 따른 남북의 식생활과 음식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분단 이전 일제강점기 북한 음식을 통해 그것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 분석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농인의 눈으로 본 북한	2022	북한과 남한의 수어의 차이를 소개하고, 북한 농인에 대한 현황과 북한을 방문한 외국 농인의 에피소드를 통해 남북 농인의 교류의 방향과 모습을 제시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MZ세대가 궁금해 하는 통일 이야기	2022	학자, 외교관, 전·현직 관료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선으로 통일에 대한 시각을 다각화하고,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는 특강	
	저널 「통일과 담론」 2022년 하반기호 (제1집 2호)	2022	통일·남북관계·사회통합 등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담론을 논의하기 위해 발간한 학술지	
	저널 「통일과 담론」 창간호 (제1집1호)	2022	통일·남북관계·사회통합 등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담론을 논의하기 위해 발간한 학술지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저널 「평화와 통일」 창간준비호	2021	통일·남북관계·사회통합 등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담론을 논의하기 위해 발간한 학술지	전자책 (epub3.0)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비고
대학생 · 성인용	「손안의 통일」 생태의 시대와 DMZ(11권)	2021	기후 위기, 코로나 등 갈수록 중요해지는 생태학의 관점에서 남북 분단과 통일 후 미래상을 그려보고, 공생이란 무엇인지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동기 제공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12권)	2021	북한의 최근 관광산업 육성(인프라 설치, 여행상품 개발 등)에 대해 조명하고, 북한의 대표 명소를 소개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13권)	2021	1990년대 이후 북한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들을 6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주제별 영화에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묘사의 특징과 그 의미를 서술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DMZ를 보고 합니다(14권)	2021	DMZ의 생태적 가치, 보존·협력 방안, 민통선·접경지 남북 생태공동체 발전 방안 등을 고찰하고 남북협력 공간으로서의 DMZ의 의미 조명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15권)	2021	베를린의 분단과 통일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미완의 분단국 수도로 남아있는 서울과 평양의 미래를 조망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MZ세대가 궁금해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이야기	2021	학자, 외교관, 전·현직 관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각을 다각화하고,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는 통일 특강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북한 지식 사전 (개정판)	2021	북한의 정치, 군사, 대남·대외,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표제어를 선정, 김정은 체제의 정책·담론(표현)·기관(조직) 등 현황에 대해 집성한 사전(5년 주기 발간)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평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21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북한 도시 평양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공존 번영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핸드북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EU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찾다	2021	EU 경제통합 사례의 성과·한계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한반도 경제통합 모델 탐색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비고
대학생 · 성인용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2021	정부·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여성·생태 분야로 나누어 분단 이후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표출되어 온 통일담론을 정리, 성찰의 결과를 담아낸 전문가용(유관 전공자용) 도서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북한 뉴스 바로 보기 6권)	2020	인포데믹 시대에 북한 뉴스 읽기 : 가짜 뉴스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 관련 오보를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아빠와 딸 DMZ를 건다 (7권)	2020	비무장 지대의 우리 역사를 찾아서 : 대학생 딸과 아빠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는 비무장지대·민통선 인근 문화유산 답사기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8권)	2020	어른으로 읽는 북한과 통일 :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의 결론을 통해 본 통일문제 관련 우리 사회 여론 지형 분석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100년 전 역사에서 통일을 묻다(9권)	2020	고종부터 신채호까지 가상 역사 토론 : 오늘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00년 전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당대 인물들의 가상 토론을 통해 고찰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손안의 통일」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여행 (10권)	2020	화폭 속 화가의 발자취를 따라 : 우리 역사 속의 화가들과 북한 현대 작가들의 그림을 통해서 본 금강산 와유(臥遊: 누워서 유람하기) 기행문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2020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변화를 추적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전략을 모색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특강	2020	△학자 △외교관 △경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선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각을 다각화하고,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특강	
	패션&메이크업으로 본 북한사회	2020	패션과 메이크업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살펴보는 핸드북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비고
대학생 · 성인용	평화로 가는 사진 여행	2020	작가가 직접 북녘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모습 등 사진을 통해 딸아이에게 들려주는 평화 이야기	
	굿 피스2 (Good Peace)	2020	4인4색 전문가들과 인문학적 시선에서 바라본 평화 이야기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2020	판문점의 개요·역사·의미, 자유의집·도보다리 등 관람 코스 설명 등을 담은 해설서	
	「손안의 통일」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 (1권)	2019	보수·진보가 함께 쓴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13가지 물음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팀의 시민단체들이 13가지 주제에 대해 보수·진보의 입장, 합의점, 토론매뉴얼 등을 정리	장애인접근 전자책 (epub3.0)
사회적 배려 대상자	남떡 북떡 썩떡썩떡 (오디오북)	2022 (한글/영문)	떡을 좋아하는 남쪽 북쪽 동물들이 남북 사이에 있는 '사이 큰 숲'에 모여 정겹게 노래 부르며, 떡을 쿵덕쿵덕 만들고 썩떡썩떡 나눠 먹으며 즐기는 과정을 표현한 동화책(동요 7곡 포함)	
	그래! 달라도 괜찮아 (오디오북)	2021 (한글) 2022 (영문)	명절을 맞아 남북의 동갑 친척 아이들이 만나 익숙하고 낯선 음식·놀이문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내용을 따뜻한 그림체로 표현한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사라진 마법의 구슬 (오디오북, 점자책)	2021	구슬·기차여행·순천(남북 통일 지명)을 소재로, 남북한 어린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내용의 동화를 시·청각장애인용 교재로 제작	
	캠핑 가는 날 (오디오북)	2020	남과 북의 어린이가 캠핑을 통해 진정한 친구가 되는 동화를 시각장애인용 교재로 제작	
	이혜리와 리혜리 (오디오북, 점자책)	2019	남과 북의 어린이가 처음 만나 다름을 인정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동화를 시·청각장애인용 교재로 제작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비고
교사용 지도서	통일교육 클립 영상 활용 가이드	매년	학교 수업용 '교과 연계 클립 영상' 활용을 위한 교사용 안내서	
	통일교육주간 수업용 표준 강의안	매년	통일교육주간 계기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일일 통일교사용 PPT강의안 △초등용 △중·고등용 △대학 일반용	
	역사 속의 통일 (표준강의안)	2020	통일신라·독일 등 국내외 통일사례를 통해 통일 요소인 사회통합의 의미 고찰 * 영상과 함께 활용(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참고)	
	남북 유네스코 문화유산 (표준강의안)	2020	남북 유네스코 문화유산 현황, 공동등재 노력 등 통일문화 형성 노력 * 영상과 함께 활용(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참고)	
	통일교육 전시자료	2020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시 패널 자료, △통일노력 △북한 청소년 생활1·2 △판문점 △DMZ 5종	

2. 영상 자료(2019~2022년)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TV 영상	한국인의 밥상(KBS1)	2022	영농정책 탈북민의 소소한 일상 모습 속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 메시지 전달	TV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tvN)	2022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남북한 분단과 통일에 대한 화두를 전달, 평화 통일의 중요성 환기	TV 프로그램
	KBS1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강원도 철원 편	2021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아름다운 평화의 꽃을 피워가며 살아가는 철원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조명	TV 프로그램
	MBC every1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2021	한국살이 외국인 조나단·다니엘·알베르토의 철원 지역 평화 투어	TV 프로그램
	JTBC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 하동균·김예림 편	2021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평화' 관련 노래(라구요, Imagine)를 부르며 분단의 아픔 해소,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TV, 유튜브 동시 편성)	TV 프로그램
	EBS 「건축탐구 집」 통일을 꿈꾸는 공간편	2020	<대한민국 건축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높이 평가되는 국립통일교육원의 건축물을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소개	TV 프로그램
	「감성토크 굿피스」 시즌 2 3편	2020	전문가 웹토크를 통해 평화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고찰 △피스메이커 △평화머니 △평화이슈	TV 프로그램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6.25 특집편 (클립영상 6편)	2020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6.25 70주년 특집편.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통해 한반도 평화 염원을 위한 메시지 전달	웹 예능
	JTBC 「방구석 1열」 6.25 특집편 (클립영상 5편)	2020	JTBC <방구석 1열> 6.25 70주년 특집편. 영화 1917 vs 스윙키즈를 통해 알아보는 평화의 소중함	TV 프로그램
	EBS 「다큐 잇」 '어떤 날에 우리는' 편	2020	국립통일교육원과 EBS가 협업하여 제작한 통일 교육 특집방송(교통도의 다양한 실향민 사연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TV 프로그램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TV 영상	JTBC 「차이나는 클라스」	2019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32화(중앙대 김누리 교수 강연)독일 통일 및 독일 현대사를 통해 살펴본 한반도가 걸어야 할 길	TV 프로그램
	Arirang TV 「Embracing Peace」 (part 1 : Peace Economy)	2019	(Embracing Peace 한글자막) 2017년 7월 신베를린 선언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 통일을 위한 남북의 노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 가져올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 (1부: 경제 분야)	TV 프로그램
	Arirang TV 「Embracing Peace」 (part 2 : New Identity)	2019	(Embracing Peace 한글자막) 2017년 7월 신베를린 선언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 통일을 위한 남북의 노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 가져올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 (2부: 사회·문화 분야)	TV 프로그램
	tvN D 「감성토크 굿피스」 시즌 1, 4편	2019	평화·통일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알쓸신잡’ 형식의 토크 4편 △연결 △변화 △공간 △사람	TV 프로그램
	EBS 통일특집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2019	보니하니와 함께하는 통일교육주간 특집 △‘보니하니’ 슬기로운 학교생활, ‘이게 뭐게 차도개’ 등 5편	TV 프로그램
	EBS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2019	EBS 평화 공감 프로젝트 △비밀의 문을 열다, 판문점 △3.1운동100주년과 통일 △남쪽에서 풀어보는 통일이야기	웹예능
유아용	그래! 달라도 괜찮아!	2022	명절을 맞아 남북의 동갑 친척 아이들이 만나 익숙하고 낯선 음식·놀이문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내용을 따뜻한 그림체로 표현한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3 「초콜릿 장벽편」	2021	베를린 장벽을 모티브로 우리의 분단 현실과 극복 노력, 남북 간 교류와 소통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전달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디저트 이야기 「냉면편」	2021	남북이 즐겨 먹는 냉면의 유래와 역사적으로 흥미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남북 간 공동체성 확인	애니메이션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유아용	반지의 비밀일기 「고양이와 수상한 사촌편」	2021	탈북 청소년과 고양이를 소재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배제(상호 이해)와 존중, 포용의 가치 전달	애니메이션
	사라진 마법의 구슬(11분)	2021	구슬·기차여행·순천(남북 동일 지명)을 소재로, 남북한 어린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내용의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애니메이션
	통일 그림동화 「캠핑 가는 날」 애니메이션	2020	얼굴 생김새, 성격 등이 모두 다른 남·북한 어린이가 우정을 나누게 되는 내용의 동화책 「캠핑 가는 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왕스 북한편	2019	인기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왕스의 국립통일교육원 특집편	애니메이션
	이혜리와 리혜리 애니메이션	2019	남과 북의 어린이가 처음 만나 다름을 인정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야기 동화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애니메이션
초등용	브이로그로 떠나는 국립통일교육원 랜선투어 (수유산책)	2022	[전학년]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수유산책이라는 견학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	교과 클립 영상
	통일한국 미리보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2022	[고학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탐방하며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기회 제공	교과 클립 영상
	남과 북을 이어주는 K-리듬, 아리랑	2022	[전학년] 남과 북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설명하고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민족임을 느끼고 통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 전달	교과 클립 영상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기했던 것은?	2022	[고학년] 남과 북의 언어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기	교과 클립 영상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	2022	[고학년]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모습 보여주며 설명하고 학생이 통일을 위해 나라 사랑 활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 제시	교과 클립 영상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초등용	알쏭달쏭 북한말 이야기	2022	[고학년] 북한 낱말이 우리 낱말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고 서로 이해하는 자세 다지기	교과 클립 영상
	비무장지대는 어떤 곳일까?	2022	[저학년] 비무장지대에 대해 설명하고 비무장 지대에 살아가는 동물들 소개	교과 클립 영상
	우리나라의 국기는 어떤 모습일까?	2022	[저학년]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통일이 되어 공통 국기를 갖기를 고대	교과 클립 영상
	북한 학생들의 생활은 어떨까?	2022	[저학년] 북한 학생들의 생활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학생들과 같은점 다른점 살펴보기	교과 클립 영상
	AR 통일교육교재 「통일봄」 활용 수업	2022	[전학년] 초중등 대상 AR 통일교육교재 시연 수업 영상	교과 클립 영상
	독일은 어떻게 통일했을까?	2022	[고학년] 독일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장점 설명하고 통일 후 유망직업에 대해 살펴보기	교과 클립 영상
	북한의 간식은 어떤 게 있을까?	2022	[고학년] 북한의 간식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고 북한 간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통일에 대한 의지 다지기	교과 클립 영상
	남북 분단과 이산가족	2022	[저학년] 가족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정리하고 이산가족이 생긴 역사적 이유와 이산가족의 슬픔 들여다보기	교과 클립 영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을 알아보아요	2022	[저학년]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설명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교과 클립 영상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알고 있나요?	2022	[고학년] 6.25전쟁으로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살펴보고 더 이상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해야 함을 말하기	교과 클립 영상
	남북의 언어 들여다보기	2022	[고학년] 북한 낱말 퀴즈를 맞히면서 북한말에 대한 흥미 유도	교과 클립 영상
	헤어져 사는 것은 슬퍼요	2022	[저학년] 우리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픔을 설명하기	교과 클립 영상
	한반도 여행을 떠나요	2022	[저학년] 우리나라와 북한의 아름다운 곳, 볼거리, 인물, 음식 등을 설명하며 소개	교과 클립 영상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초등용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9분)	2021	[저학년] 북한 친구들이 즐겨 읽는 전래동화를 알아보며 남북 간 공동체성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	교과 클립 영상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2020	[저학년] 학교생활, 놀이, 소풍, 간식 등 북한 친구들의 일상생활 모습 소개	교과 클립 영상
	걸어서 북한 속으로	2020	[고학년] 북한의 행정구역과 주요 도시, 각 지역별 특징 소개	교과 클립 영상
	북한 교과서가 궁금해요	2020	[고학년, 중등] 윗동네(북)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아랫동네(남) 친구들과 단짝이 되어 함께 알아보는 “북한 교과서”	교과 클립 영상
	윗동네 애니메이션이 궁금해?	2020	[3~6학년, 중등] 윗동네(북)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아랫동네(남) 친구들과 단짝이 되어 함께 알아보는 “북한 애니메이션”	교과 클립 영상
	북한의 추석·설 풍경	2020	[전학년] 윗동네(북)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아랫동네(남) 친구들과 단짝이 되어 함께 알아보는 “북한의 추석, 설 명절”	교과 클립 영상
	호담국, 한반도의 호랑이 이야기	2019	[저학년] 옛날부터 ‘호담국’으로 불릴 정도로 호랑이 이야기를 즐겨했던 우리나라, 남북한 어린이가 들려주는 한반도의 호랑이 이야기	교과 클립 영상
	통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	[고학년] 레고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톱모션 형식의 통일 대담쇼.	교과 클립 영상
	어느 동화작가의 유언장	2019	[고학년] ‘강아지 똥’, ‘몽실언니’의 저자인 권정생 선생의 두 번의 유언장 이야기	교과 클립 영상
	구름빵, 추석에 만난 친구	2019	[저학년] 흥사와 흥비는 추석을 맞아 북한 친구 윤서를 만나 연을 함께 만들며 보름달을 향해 통일이 오기를 기도	교과 클립 영상
	남북한의 말모이 대작전	2019	[고학년] 남북한의 국어학자들이 만들어가는 또 다른 말모이 작전 ‘겨레말큰사전’	교과 클립 영상
	마음으로 그리는 통일미래	2019	[고학년] ‘하나 된 한반도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이자 희망이기에, 마음으로 통일미래를 그려보자’ 는 메시지를 전달	교과 클립 영상
	북한의 명물 (보니하니)	2019	[저학년] 차가운 도시의 개(차.도.개)가 명물인 개성 고려인삼, 풍산개를 소개	교과 클립 영상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초등용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2019	[고학년] 구름빵의 두 주인공 흥비와 흥시가 이웃 아저씨와의 오해로 담을 쌓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화해하는 이야기	교과 클립 영상
	통일선배 독일 이야기	2019	[고학년] 10대 때 독일 통일을 경험한 '안톤 솔츠' 기자가 들려주는 독일 통일의 역사와 과정들	교과 클립 영상
중고 등용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2021	1971년 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걸어온 길을 살펴보는 영상	교과 클립 영상
	냉전, 탈냉전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2021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와 탈냉전 흐름이 세계 각국과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분단이 종식되기를 기원	교과 클립 영상
	남북 김치문화, 역시 이 맛이지	2021	분단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식생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한의 김치와 김장문화를 알아보고, 남북 간 공동체성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	교과 클립 영상
	평화를 지켜추	2021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평화를 지키러 국립통일교육원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방문한 이달의 소녀 '추'의 평화 브이로그	유튜브 영상
	평화란 무엇일까?	2020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	교과 클립 영상
	있다! 없다! 북한 학교 이야기	2020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	교과 클립 영상
	역사의 현장 DMZ	2020	DMZ가 6.25전쟁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역사의 현장이며, 앞으로는 통일 미래가 펼쳐질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	교과 클립 영상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후 유망직업	2020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후 유망직업, 통일 후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영상	교과 클립 영상
	정전협정 체결과정	2020	1953.7.27. 체결된 휴전협정 체결 과정 소개	교과 클립 영상
	북한 6대 관광지 (3분)	2020	북한이 추천하는 6대 관광지 이야기	교과 클립 영상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중고 등용	거제포로 수용소 이야기	2020	6.25전쟁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거제포로 수용소” 이야기	교과 클립 영상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은 북에서 온 사실을 왜 밝히지 않을까?	2020	윗동네(북)에서 온 친구들이 처음에 TV 출연을 꺼렸지만 용기를 내어 출연한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감동적인 이야기	교과 클립 영상
	변화하는 북한사회, 북한주민의 일상	2020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소개	교과 클립 영상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	2020	우리의 언어와 문학을 풍요롭게 만들었으나 일제 식민지배와 분단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냈던 박완서와 백석, 두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 소개	교과 클립 영상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2020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지 이야기 해보는 영상	교과 클립 영상
	자원전쟁	2019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을 소개하고, 세계열강이 북한의 자원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남북의 협력을 통해 남북 상호 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	교과 클립 영상
	철도, 대륙을 향한 꿈	2019	남북철도에 얽힌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고, 남북 철도 연결로 진정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통로로 거듭날 한반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	교과 클립 영상
	통일의 피아노-고향의 봄	2019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현을 만든 통일의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와 통일의 음악소리	교과 클립 영상
	통일한국의 유망직업은?	2019	문화유튜버 와유(waYoo)와 함께 통일 후 우리 친구들이 꿈꿀 수 있는 유망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	교과 클립 영상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2019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이 겪은 어려움과 차별들, 그리고 소중한 꿈에 귀 기울이며 공존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봄	교과 클립 영상
	이러다 통일되면 어찌지?	2019	통일에 대한 십대들의 걱정, 통일 후 변화, 그리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교과 클립 영상
	북한의 최근 변화 동향	2019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소개	교과 클립 영상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중고 등용	남과 북의 수학용어	2019	남과 북이 함께 수학을 배운다면? “거꿀수(역수), 뽕족각(예각), 사김(교집합)?” 우리와는 다르지만 알수록 재미있는 북한의 수학용어 소개	교과 클립 영상
대학생 · 성인용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2022	현 국제정세 속에서 현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 확보 및 국제 협력 방안, 비핵화 전망 등 논의	공공 영상
	북한인권 문제와 향후 과제	2022	북한인권 현실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및 방향 제시	공공 영상
	영화로 보는 통일 : 육사오, 바람을 타고 북으로 넘어간 로또	2022	영화 ‘육사오’ 소개를 통해 남북 문화적 동질성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배우고 통일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	클립 영상
	기후변화와 북한	2022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과 북한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클립 영상
	2030이 만드는 평화·통일 영상	2022	△이중섭(화가) △놀이 △여행 △우리(WE)를 주제로, AI 스타일 전이 기술 및 360도 촬영 기법을 통해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제작	유튜브 영상
	육식맨(북한 지역에서 먹는 육류 요리, 북한 토끼고기탕)	2022	북한 지역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육류(토끼 고기)에 대한 소개와 이를 활용한 요리 소개 및 평가	유튜브 영상
	단앤조엘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평화)	2022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알아보는 외국인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
	단앤조엘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통일)	2022	교동도에서 알아보는 외국인의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
	남떡 북떡 썩떡썩떡 북리뷰	2022	북리뷰 유튜버 하자씨의 그림동화 남떡 북떡 썩떡썩떡 리뷰영상 ‘당신에게 곧 도착할 초대장’	북리뷰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2021	코로나,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한반도 이슈와 주변국 상황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공공 영상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대학생 · 성인용	생태한반도, 남북 공동의 미래	2021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신 안보 위협을 겪으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간과 자연,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 한반도의 중요성과 남북 환경·생태 협력 분야 소개	공공 영상
	연애 블랙리스트 「어서와 북한 연애는 처음이지?」	2021	북한 청춘남녀의 사랑, 연애, 결혼문화를 알아보고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메시지 전달	유튜브 영상
	장성규 부자의 임진각 평화소풍	2021	방송인 장성규가 가족과 함께 임진각을 방문하여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평화, 분단, 이산가족, 6·15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평화 염원의 메시지 전달	유튜브 영상
	사피엔스 스튜디오 「갈등 읽어드립니다」-1	2021	역사를 통해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조명	유튜브 영상
	사피엔스 스튜디오 「갈등 읽어드립니다」-2	2021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 급증하고 있는 갈등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현명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	유튜브 영상
	사피엔스 스튜디오 「갈등 읽어드립니다」-3	2021	심리학, 사회학, 종교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갈등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	유튜브 영상
	알베르토, 다니엘, 럭키 3인방의 갈등과 사회통합 이야기	2021	갈등에 대한 354 멤버들의 생각과 각국의 갈등 사례(인도 카슈미르 분쟁, 이탈리아 남북갈등, 독일 통일)를 알아보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성 모색	유튜브 영상
	짬막시리즈 : 북한에 시식 코너가 있다?	2021	시장, 장마당, 쇼핑 역사·핫플레이스 등 북한 쇼핑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	유튜브 영상
	짬막시리즈 : 북한에도 사교육이 있을까?(14분)	2021	남북한의 교육 제도를 비교하며 알아보는 북한의 학교 모습	유튜브 영상
짬막시리즈 : 북한에도 취업난이 있을까?	2021	취업, 직장 생활 등 북한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직업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	유튜브 영상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대학생 · 성인용	짤막시리즈 : 북한에서도 연애결혼을 할까?	2021	북한 젊은 세대들의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 등 북한의 연애와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	유튜브 영상
	짤막시리즈 : 북한에서 이자율 100% 통장이?	2021	북한의 은행, 재테크 등 금융·경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	유튜브 영상
	역사 속의 통일	2020	통일신라·독일 등 국내외 통일사례를 통해 통일의 요소로서 사회통합의 의미 고찰	공공 영상
	남북 유네스코 문화유산	2020	남북 유네스코 문화유산 현황, 공동등재 노력 등 통일문화 형성 노력 강조	공공 영상
	짤막시리즈 : 북한 사람은 카톡을 사용할까?	2020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패러디를 통해 북한의 소셜 네트워크 활용, 배달 앱을 이용한 음식 배달 등 내용	교과 클립 영상
	짤막시리즈 : K-뷰티 말고 N.K-뷰티?	2020	뷰티 유튜버를 따라하며 북한 메이크업 팁, 북한 자체 브랜드 화장품 등 설명	교과 클립 영상
	짤막시리즈 : 평화는 커피향을 타고~	2020	북한 커피믹스, 커피 전문점, 개성 고려 인삼 커피 등 북한 커피 이야기	교과 클립 영상
	짤막시리즈 : 평양냉면 말고! 요즘 북한에서 뜨는 먹거리는?	2020	'북한 사람이 씹을 탄다면'이라는 궁금증을 시작으로 북한 패스트푸드, 대동강 맥주, 북한 라면 등 소개	교과 클립 영상
	짤막시리즈 : 북한, 어디갈래 챌린지	2020	세계적인 관광 명소에 자신의 모습을 합성한 연예인 사진을 바탕으로 북한 맛집, 개성 한옥 보존지구, 마전 해수욕장 등 설명	교과 클립 영상
	북리뷰 : 캠핑가는 날	2020	통일그림동화「캠핑 가는 날」에 대한 유튜버 '유투북 진서'의 리뷰 영상	교과 클립 영상
	북리뷰 : 혐오시대 헤쳐가기	2020	'19년 발간 손 안의 통일 시리즈 중「혐오시대 헤쳐가기」에 대한 유튜버 '책읽찌라'의 리뷰 영상	교과 클립 영상
	북리뷰 : 우리의 소원은 평화	2020	'19년 발간 손 안의 통일 시리즈 중「우리의 소원은 평화」에 대한 유튜버 '책읽찌라'의 리뷰 영상	교과 클립 영상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대학생 · 성인용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2019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확인	공공 영상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전망	2019	2019년 현재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전망	공공 영상
	평화경제의 비전	2019	평화경제의 비전과 필요성은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제시	공공 영상
재외동포 · 외국인용	「Nam-tteok Buk-tteok, Ssuk-tteok Ssuk-tteok」	2022	It is a fairy tale book that describes the process of sharing rice cakes and enjoying them while singing in the forest between the two koreas.(PDF)	Fairy tale
	「Four Seasons Expediton-Living in Pyongyang for a Year」	2022	Playbook providing children with the opportunity to enjoy interesting and creative activities and to naturally learn information about peace·unification·North Korea (PDF)	Playbook
	What Do Foreigners in Korea Think of Peace? Jeju edition!	2022	The story of peace that foreigners think of in Jeju Island, a world peace island.	Youtube
	What Do Foreigners in Korea Think of Unification? Gyodong Island edition!	2022	The story of Unification of Foreigners in Gyodong-do.	Youtube
	Banzi's Secret Diary 「Cats and Suspicious Cousin」	2021	Based on adolescent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cats, It excludes prejudice against others(mutual understanding) and conveys the value of respect and embracement.	Animation
	Folktales Loved by Children in North Korea	2021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feel a sense of community between the two koreas by recognizing traditional fairy tales that North Korean friends enjoy reading.	Curriculum Clip Video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재외동포 · 외국인용	The Cold War, Post-Cold War an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2021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era on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e Korean Peninsula after World War II, and wish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still not over, to be ended.	Curriculum Clip Video
	What Does it Mean 'Peace'?	2021	Meaning and importance of peace. It introduce the story of people who served for peace.	Curriculum Clip Video
	Embarcing Peace (part 1 : Peace Economy)	2019	It includes followings: Since the New Berlin Declaration in July 2017,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efforts to unify, and various opportunities and possibilities that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ring. (Part1 : Economy Field / Arirang TV)	TV Program
	Embarcing Peace (part 2 : New Identity)	2019	It includes followings: Since the New Berlin Declaration in July 2017,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efforts to unify, and various opportunities and possibilities that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ring. (Part2 : Social and Cultural Field / Arirang TV)	TV Program
	Knocking the Door of Peace and Communication	2019	(‘Knocking the Door of Peace and Communication.’ The English version of the campaign ad.) Imaging with expectations and hopes for peace,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mpaign ad
사회적 포용 콘텐츠	2030이 만드는 평화·통일 수화 이모티콘	2022	청각 장애인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의 의미를 담은 캐릭터와 수화 동작(△고마워 △우리는 하나 등)으로 구성 * LINE 매신저 탑재 (무궁토끼와 목란토끼)	이모티콘
	한반도 여행을 떠나요 (청각장애인용)	2022	[저학년] 우리나라와 북한의 아름다운 곳, 볼거리, 인물, 음식 등을 설명하며 소개	교과 클립 영상
	독일은 어떻게 통일했을까? (청각장애인용)	2022	[고학년] 독일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장점 설명하고 통일 후 유망직업에 대해 살펴보기	교과 클립 영상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사회적 포용 콘텐츠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알고 있나요? (청각장애인용)	2022	[고학년] 6.25전쟁으로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살펴보고 더 이상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해야 함을 말하기	교과 클립 영상
	반지의 비밀일기 「고양이와 수상한 사촌편」 (청각장애인용)	2021	탈북 청소년과 고양이를 소재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배제(상호 이해)와 존중, 포용의 가치를 전달하는 영상을 청각장애인용으로 제작	애니메이션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 (청각장애인용)	2021	북한 친구들이 즐겨 읽는 전래동화를 알아보며 남북 간 공동체성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상을 청각장애인용으로 제작	교과 클립 영상
	냉전, 탈냉전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청각장애인용)	2021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와 탈냉전 흐름이 세계 각국과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분단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영상을 청각장애인용으로 제작	교과 클립 영상
	평화란 무엇일까? (청각장애인용)	2021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 영상을 청각장애인용으로 제작	교과 클립 영상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모든 교육용 영상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통일교육 자료는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http://www.uniedu.go.kr>) 「자료마당」에서 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재고가 있는 자료는 본인에게 직접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연구개발과 : 02-901-7164)

통일교육지원법

[1999.2.5 제정, 2022.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를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통일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처 국립통일교육원 / www.uniedu.go.kr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TEL 02)901-7011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TEL 02)2275-5326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